

“진각 국사가 간화선 정립시켜”

김영욱 씨 '어록' 역해 펴내

“조사(祖師)다 운 본분을 활발하게 펼쳐 보이면서 간화선을 실천적으로 구현한 인물은 진각 국사였다.”



한국불교사에서 간화선의 가치를 부각시킨 선구자가 보조 국사(1158~1210)였다면, 조사로서의 활발한 선풍을 보여준 간화선을 실질적으로 정립한 스님은 진각혜심(眞覺慧心, 1178~1234) 스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간화선문화연구원(원장 지관) 책임연구원 김영욱 박사(사진)는 최근 펴낸 <진각국사어록 역해>(가산불교문화연구원)를 통해 “혜심은 보조 국사의 제자로서 한국불교의 선풍(禪風)을 크게 떨쳤으나, 그간 스승의 명성에 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박사는 “보조 국사는 교학과 간화선을 비교하며 그 차별성을 냉철하게 관찰한 학자 성격이 강한 반면, 혜심은 그 당시까지 축적된 선법들을 독자적인 간화선적 방법으로 소화해 일상 속에서 선지를 펼쳤던 조사였다”고 말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어록을 남기지 못했으면서도 간화선의 가치를 부각시킨 보조 국사가 한국 선종의 중흥조로 평가된 것에 비해, 활발한 선풍을 보이며 생생한 어록을 남긴 혜심은 상대적으로 묻혀 있었다는 것. 이는 연구의 1차 사료가 되는 원전(어록과 저작)에 대한 번역과 이해가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박사는 진각 국사의 가풍과 관련, “갑각적인 대상에 본분(本分)의 소식을 실어 활발하게 중지를 펼치지만 곳곳에 화두라는 관문을 설정해 두는 것이 국사의 전략이다”고 풀이했다.

진각 국사가 남긴 상당(上堂·법좌에 앉아 거행한 설법) 138장과 시중(示衆·대중에게 한 짧은 설법) 20장의 원문과 번역문, 그리고 해설 등을 담은 <진각국사어록 역해>는 한문을 국어, 어록의 간화선적 맥락을 섬세하고도 정확하게 짚어냈다는 점에서 혜심을 새롭게 조명할 계기를 제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재경 기자

3D로 문화재 쉽게 설명

‘한국 석탑의 문화원형’
‘한국 전통목조건축 부재별’

디지털 콘텐츠 사업 선정

언제부턴가 우리는 모르는 것을 만나면 제일 먼저 인터넷으로 달려가 답을 찾는 버릇이 생겼다. 그 안에는 엄청난 디지털 콘텐츠가 있기 때문이다. 불국사로 답사 여행을 떠나는 영배네 가족도 마찬가지. 사전 준비 차원에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본다. 그러나 이내 난관에 봉착한다. 육개석이 어저고, 장석이 어저고... 석탑에 관련된 명칭이라는데 무슨 말인지 알쏭달쏭하기만 하다. 문화재청이나 불교계 홈페이지들을 뒤져봐도 궁금증을 확 풀어 줄 만한 자료를 만나기란 어렵기만 하다. 디지털 콘텐츠의 범람 속에서도 불교 문화재 콘텐츠는 양적으론나 질적으로나 빈약한 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의 ‘2004년 우리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사업 공모’ 결과 전남대 문화예술평가사업단(단장 성진기)의 ‘한국 석탑의 문화원형을 이끈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명지전문대 산학협력단(단장 김성태)의 ‘한국 전통목조건축 부재별 조합에 따른 3차원 디지털 콘텐츠 개발’이 최종 선정돼 눈

길을 끈다. 불교 문화재 콘텐츠화의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물론 사업화가 가능성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 석탑의...’는 미륵사지·정림사지탑, 석가탑 등 10개의 주요 석탑을 사진, 3D 그래픽, 동영상 등으로 구현하고 관련 캐릭터를 개발한다. ‘한국 전통목조건축...’는 사찰, 궁궐, 서원 등의 전통건축물의 부재 150여 가지를 3D 형태로 구현하고, 이들의 조합을 통해 이들을 뒤져봐도 궁금증을 확 풀어 줄 만한 자료를 만나기란 어렵기만 하다. 디지털 콘텐츠의 범람 속에서도 불교 문화재 콘텐츠는 양적으론나 질적으로나 빈약한 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사업에서 눈에 띄는 것은 3D 콘텐츠 개발 계획이다. 3D 콘텐츠는 대상 사물을 돌려가며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가상 해체·복원도 가능하게 해 문화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보여주는 방식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 도 불구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보니 불교 문화재와 관련해 이렇다 할 3D 콘텐츠가 개발된 적은 거의 없다. 3억 남짓한 각 사업들의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얼마나 양질의 산출물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

임은 분명하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들 사업이 불교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한국 전통목조건축...’은 불교 문화재가 게임, 애니메이션 백그라운드 이미지 제작, 고건축설계, 문화재복원, 전통건축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 콘텐츠로 개발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좋은 예다.

‘한국 석탑의...’의 과제책임자인 천득업 전남대 교수는 “지금까지 불교 문화재를 보호하는 데만 힘썼던 콘텐츠화의 노력은 부족했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불교 문화재를 소재로 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사업화 시도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우리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사업’은 2002년에 시작돼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으며 ‘한국 문화원형에 등장하는 인물 캐릭터 소재 개발’ 등 39건이 개발 완료됐고, 23건이 개발 중이다. 완료된 사업의 결과물은 문화콘텐츠닷컴(www.culturecontent.com)에서 볼 수 있다.

박익순 기자 info@buddhapia.com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42>



근대적 생명과학과 탈근대적 불교

현재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생명과학은 서양 근대 과학의 한 분야로서 근대적 생명관의 산물이다. 신념의 이름으로 인간 삶의 희생을 강요하던 중세를 벗어나 개인의 욕망 충족을 인정한 근대에 들어서면서, 인간은 세계를 소유와 지배의 대상으로 간주하게 됐다.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인간은 자연과 타인을 유희적으로 대상화시키고 분석하는 과학적 방법을 발전시켰고, 그것은 오늘날의 거대한 물질문명의 계기가 됐다. 과학은 우리의 욕망을 소유하는 형식으로 충족시키는 수단이 되어 사회의 물질적 풍요를 뒷받침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계론적 사고방식과 사물의 소유를 통해 나타난 오늘날 세

계의 전형적 모습이다. 과학적 지식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생명과학은 근대적 가치관에 바탕을 둔 과학지상주의의 흐름을 타고 모든 것의 구체주인 양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관계로서 연결되어 있고, 모든 생명체는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기 기 계적 관점으로 대상화시킬 수 없음을 강조하셨다. 또 모든 존재는 서로가 서로에게, 결과가 원인에게도 영향 미칠 수 있기에 서로 나누며 서로를 존중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제도나 법, 과학적 지식이 어떠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쓰는 주인공의 소유를 통해 나타난 오늘날 세

과학적 지식 ‘목적’ 아닌 ‘수단’에 불과 생명은 기계적 관점의 대상될 수 없어

상의 모습은 개인과 집단의 욕망 추구에 따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별과 지배, 그로 인한 소외와 단절의 모습이 다. 근대적 제도나 법, 혹은 과학이 이상 사회를 만들어서 참다운 인간적 삶이 가능하다고 믿는 이 시대의 소박한 법학·사회학·과학자들의 꿈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

전통적 근대 자본주의국가며 과학이 발달한 영국이나 미국 사회를 볼 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치안공백 때 나타나는 폭동이나 약탈, 인종 갈등은 무어라 설명할 것인지. 그것은 결코 근대적 이론으로 무장한 정치가나 학자들이 꿈꾸는 이상사회와는 전혀 거리가 먼, 굳이 말한다면 자유라는 이름하에 추구되는 유희적 욕망이자, 이를 위해 돌진해 가고 있는 근대사

성숙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성숙도가 결정됨을 말해주고 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사회는 바뀌지 않는다.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생명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여전히 우리의 욕망 충족을 위해 발전하여 개인과 사회의 소외와 단절을 심화시킬 뿐이다. 우리 사회가 근대를 뛰어넘는 다양한 탈근대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만물이 상호의존적 존재이며 모든 생명은 존엄함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인간 욕망의 실재를 파악하고 진정한 자유로움을 무엇인지 깊이 통찰하여 각 개인이 자각하고 스스로 변할 때 진정한 생명과학의 방향은 탈근대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봉은사 삼세불 ‘비밀’ 벗다

승일 스님 조각품... 이분희 씨 주장

봉은사 대웅전의 아미타불상과 약사여래상은 1651년, 석가여래상은 1700년 전후에 조성됐으며, 조각공은 당대 뛰어난 조각승인 승일 스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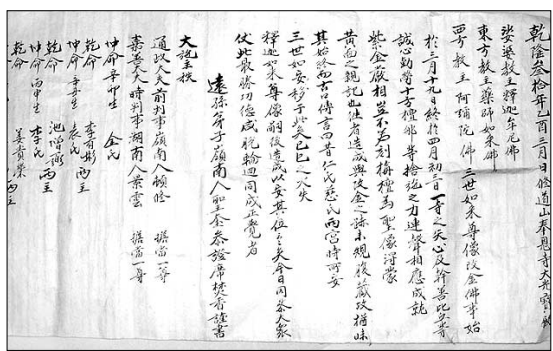
7월 3일 서울 봉은사주지 원혜에서 ‘봉은사의 불교문화’를 주제로 열린 한국불교문화학회(회장 오출세) 하계학술 세미나에서 이분희 연구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은 ‘봉은사 삼세불상의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근거가 된 기록은 아미타불상에서 나온 ‘발원문’(1651)과 석가여래상에서 나온 ‘건웅삼삼년개급발원문’(1765) 등의 복장문과 도안(1638-1715) 스님의 ‘법당불상조성불사 권선문’이다. ‘두 발원

문과 권선문에 따르면 1651년에 삼세불을 조성했으나 석가여래상은 1685년의 화제로 소실되어 1700년 전후로 다시 조성됐음을 알 수 있다”고 이 연구원은 말했다.

기록을 통해 확인된 50여년의 차이는 석가여래상과 다른 두 불상의 양식의 차이와도 일치한다고 이 연구원은 밝혔다. 석가여래상은 옷자락이 형식화되고 간략해져 후대인 18세기 불상에 가까운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원은 복장문을 통해 아미타불상과 약사여래상의 수조각공이 승일 스님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승



‘건웅 30년 개국 발원문’(1765).

일 스님은 17세기에 주요 불상 조성을 주도한 무렵·현진 스님의 작업에 참여했던 인물로, 두 스님을 계승한 인물이라는 것이 이 연구원의 생각이다. 두 스님의 양식상 특징이 승일 스님 작품에서 보이기 때문이다. 승일 스님이 조성한 불상으로는 불갑사 삼세불상(1635), 구례 천은사 수도암 목조아미타상(1646), 북교사 목조아미타불상(1657) 등이 있다.

박익순 기자

아름다운 전원 도량 일산 길상사

1백만배 1,000일 기도

“기도를 마치면 무슨 일든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천원기도 인연도량인 길상사에 부처님 진신사리 모셨습니다. 이 뜻 깊은 불사회향을 함께 하고자 매일 1080배씩 1,000일 동안 1백만배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불자님께서 1백만배 기도 동참하시어 소원하신 바를 성취하시고 성불의 인연을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입재 : 2004년 3월 15일 ◆회향 : 2006년 9월 15일 ◆장소 및 시간 : 길상사 대웅전, 매일 새벽 및 사시 예불

백중 49개 지장 천도기도 안내

8월 30일(음 7월 15일) 백중은 불교계에서 우란분절로 ‘효’ 사상을 일깨우는 뜻 깊은 명절입니다. 1,000일기도에 동참하시는 조상영가님들과 만년영구위례 영가님들을 위해 오는 7월 13일 백중 49일기도를 입재합니다. 사부대중께서는 인연 따라 꼭 동참하시어 다생겁테의 업장을 소멸하고 무진복락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사업을 하신 분, 입사자녀를 앞두신 분들은 조상님들께 가장 좋은 효도가 될 수 있는 백중 49일기도에 많은 동참바랍니다.

- ◆백중 49일 기도 입재 : 7월 13일(음 5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초재 : 7월 19일(음 6월 3일)
- 2재 : 7월 26일(음 6월 10일) 3재 : 8월 2일(음 6월 17일)
- 4재 : 8월 9일(음 6월 24일) 5재 : 8월 16일(음 7월 1일)
- 6재 : 8월 23일(음 7월 8일)

◆백중회향 기도 : 8월 30일(음 7월 15일) 오전 10시 30분

□ 교통안내 : 구파발 - 원당역 - 구교사거리 - 길상사 •차유료 - 일산 오수교 - 길상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산 70-2 전화 031)966-9852
대한불교조계종 길상사 주지 보산 합장

일산 전원 포교도량

‘상행버섯’재배, 주말농장 운영

신라천년의 숨결, 화랑이 나를 부른다-

선무도 청소년 화랑(여름) 수련회

골굴사 선무도대금강문에서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선무도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절제된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나태해지기 쉬운 방학생활이나 휴가를 보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 대안교육의 새지평’ (조선일보-2001.12)이란 평가를 받은 선무도의 사찰 수련을 통해 평소 부족한 운동량을 보충하며 화랑의 호연지기를 맞봄으로써 건강하며 활기찬 삶, 화합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삶을 배워 익힐 수 있습니다

- ▶ 연 제 : 아 계 - 7월 ~ 8월(2달간) ▶ 모집 인원 : 수시모집(1주, 2주, 안달)
- ▶ 대 상 : 초·중·고·대학생 개인 및 단체, 불교학생회 단체, 위탁연수
- * 참가금은 청소년 - 1일 2만원, 안달 60만원, 성인 - 1일 3만원, 1개월 65만원이오니 아래 계좌로 송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후 하셋더라도 입금하지 않으면 예약확정이 안되오니 미리 해당계좌로 입금바랍니다.
- 농 업 721107-52-037300 (예금주: 설기준)

- 수련내용 -

1. 안반수의 수행법,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참선, 불교한문, 전통문화(무용, 다도)
2. 기림사, 감은사지, 강행사지, 동해 문무대왕릉 등의 성지순례
3. 주지스님의 초발심 자경문과 부모은중경 강의를 통해 심성정화 및 한문공부
- * 지도진 : 스님 · 사범 등 10명, 무용강사 4명(원직교사 · 전공자), 다도강사 2명
- * 접수 및 문의 : Tel. 054)745-0246, 744-1689 Fax. 054)746-0172 홈페이지 www.sunmudo.com

일과표

시 간	내 용	시 간	내 용
4시	기상, 예불	13시	독서와 사색
5시	좌선	14시	오후 수련(학생)
6시	조경, 등산	15시	전통문화 강습(학생)
7시	이침 공양(발우 공양)	16시	윤력(도량 청소 및 정비작업)
8시30분	불교 강의	18시	저녁공양
9시	오전 선무도수련	19시	예불, 자율학습 및 참외톡(학생)
11시	108배 참회기도, 자아를 향한 서원	19시30분	저녁수련(일반인)
12시	점심 공양	21시	점오 및 취침

템플스테이 지정 사찰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굴사선무도 대금강문 · 선무도 대학